(제42권 12호)

사순절 네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IN LENT

주후 2020년 3월 2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새51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 번시편(Psalm) 32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히(Hebrews) 5:12-6:3**	이기율 집사
특별 찬양 Special Music		윤홍준 집사
설 교 Sermon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You Ought to Be Teachers)**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새452)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23장 "주께로 한 걸음씩" (새53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세상 염려와 걱정에 휩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인해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생각에만 그치는 미숙한 신앙이거나,
말로만 끝나버리는 거짓된 회개나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성장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11:28, 마 14:2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한글개역 **히 5:12**)
"In fact, though by this time you ought to be teachers, you need someone to teach you the elementary truths of God's word all over again. You need milk, not solid food" (NIV **Hebrews 5:1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22 (주일)	3/23 (월)	3/24 (화)	3/25 (수)	3/26 (목)	3/27 (금)	3/28 (토)
본문	출34 요13 잠10 엡1	출35 요14 잠11 엡4	출36 요15 잠12 엡5	출37 요16 잠13 엡6	출38 요17 잠14 빌1	출39 요18 잠15 빌2	출40 요19 잠16 빌3

수/요/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3/25 오후7:30)	"나팔을 울려 불 때에" (민 10:1-10)

지난 주일(3/15) 말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히 5:1-10)

일찍이 D. L. 무디 목사님은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아흔아홉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히5:8)절에서 "그(예수)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먼저 우리 자신의 죄사함과 정결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며, 2)둘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며, 3)셋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순종함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성공회의 일상기도문에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놓인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비틀거리는 이의 어깨를 부축하여 일으켜주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주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 되며, 우리의 믿음이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